

“농업기계 안전장치 꼭 부착하세요”

농진청, 안전사고 예방 위해 확인 조사 실시 자가진단 지침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부터 2개월 동안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조사는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트랙터 등 6기종)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해마다 실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임대 사업소에 안전장치 부착합 사례집을 사전에 제작·배포했으며, 자가진단 지침을 통해 자율적인 점검활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아울러 임대 사업소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업기계의 디지털정보 수집장치 장착 수요 등 관련 조사를 병행해 시·군단위에서도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 조사는 전국 14개 시·군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결과, ▲퇴비 살포기 45건 ▲농업용 트랙터 22건 ▲스프레이어 5건 ▲콤바인 2건 ▲농업용 동력운반차 2건의 안전장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동력전달 장치의 방호커버 미부착, 방향지시등 파손, 후사경 미부착 등으로 조사됐으며, 즉시 시정 하도록 조치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첨단농자재육성팀 진호준 사무관은 “안전장치는 농업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농기계에 부착된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되며, 파손된 안전장치가 있을 경우 즉시 수리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와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분회는 10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품질경영 혁신을 위한 '전라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품질혁신 문화 확산

전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벽산 임삼열 생산본부장 등 5명 수상

전북도와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분회는 10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품질경영 혁신을 위한 '전라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전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품질개선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하고, 기업 구성원의 자발적인 품질혁신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1981년부터 시작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품질경영 유공자 및 11개 기관(업)의 14개 분임 발표자 심사위원 등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날 (주)벽산 임삼열 익산본부장(이사)은 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전 직원 대상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품질경영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신안회성(주) 김종필 대표이사, 대륜산업(주) 선광명 선임, 육군 제3039부대 송주현 주무관, (주)대인 이동현 차장 (주)코센 장형태 팀장은 품질경영 유공 전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14개 분임조는 “1년간 5.5억원의 공정개선 등 자체 비용을 투입해 40억원의 원가절감 및 생산량 증가의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분임조는 오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울산에서 개최하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해 기업 자기주도의 품질활동의 우수사례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성명 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기업의 경쟁력은 국제 기술력과 품질에 있으며, 자기주도 품질분임 활동이야말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대표 사례”라며 “전북도는 앞으로도 품질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들의 의지를 북돋아 줄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LX공사는 본사에서 '신인사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맞춤형 교육을 이수한 6명을 LX인으로 맞았다고 10일 밝혔다.

LX, '편견없는 채용' 앞장

공공기관 최초 개설 장애인 맞춤형 채용 과정 통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경철·LX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개설한 장애인 맞춤형 채용 과정을 통해 편견 없는 채용을 실현시켰다.

LX공사는 본사에서 '신인사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맞춤형 교육을 이수한 6명을 LX인으로 맞았다고 10일 밝혔다.

LX공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맞춤형 채용 과정을 개설해 2019년, 2020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수료생

을 배출했다. 특히 이번 맞춤형 채용은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지적장애 중·취약계층과 채용을 연계한 공공기관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훈련생들은 지난 1월부터 이론·실기수업을 통해 지적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공사 근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이론과 현장실습 과정을 모두 수료했다. 그 결과 채용과 함께 현장 배치 가능해져 재교육에 대한 시간

과 예산이 절감됐다.

그동안 LX공사는 장애인 채용에 한계가 있었다. 전체 채용의 90%를 차지하는 지적장애 분야 지원 시 자격증 보유가 필수조건인 데다 산악·도수업무 특성상 장애인 채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LX공사는 장애인 맞춤형 직업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 체형형 인턴을 선발함으로써 평등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LX공사 김경철 사장은 “LX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줄 지원”이라며 “앞으로 편견 없는 채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도내 ESG 경영실천기업 현장방문 홍보 이어가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무진장축산물유통 방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0일 농협회사법인(유)무진장축산물유통을 방문하며 도내 ESG 경영실천기업 현장방문 홍보를 이어갔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10일 농협회사법인(유)무진장축산물유통(대표 박천호)을 방문하며 도내 ESG 경영실천기업 현장방문 홍보를 이어갔다.

이날 장기요 본부장은 동사의 생산 공정과 제품을 둘러본 후, 기업 소개와 ESG 실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호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농협회사법인(유)무진장축산물유통은 지난 5월 진안군에 휴폐지 축산물 가공시설을 준공해 휴폐지 사육기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상생형 ESG 실천기업이다.

장기요 본부장은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가치”라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ESG 실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

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ESG 지수 혁신 현황에 따라 최대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NH농식품그린성장펀드를 출시해 도내 중소기업의 ESG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농신보 정읍권역보증센터, '예비 귀농인 신용보증 교육'

농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읍권역보증센터(이하 농신보 정읍센터, 센터장 이성로)는 예비 귀농인들의 귀농창업자금 보증자원을 위한 신용보증 교육을 정읍시 귀농귀촌센터에서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신보 정읍센터에서는 정부의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사업 지침에서 선정된 보증대상자를 대상으로 대출금액 최고 397.500만원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 보증비용 최대 95%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정 금액까지는 위탁금융기관에서 간이신용조사 심사를 통해 보증자원이 가능하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은 농신보 센터에서 직접 심사를 통해 보증자원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예비 귀농인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보증 이용절차, 보증종류 및 한도 등 보증제도, 보증서류

등을 중심으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예비 귀농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신용보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성로 센터장은 “농신보 보증자원을 통해 정부의 귀농귀촌 사업이 활성화되고 귀농인들이 영농활동을 통해 농어촌에 잘 정착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올해도 농신보 보증자원을 위해 농어업인 보증대상자 지속 발굴 및 귀농인들의 운전자금 추가 보증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개공, 순창 순화지구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대해 우기철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지난 9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단지 내 배수처리계획 수립 ▲간접수출 대비 수방지체 확보 여부 ▲배수관 및 맨홀 등 배수상태 점검 ▲집중호우 등에 따른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호 조치 등을 중점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으며, 추가 보완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철 도래 전 6월 말까지 조치완료를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2020년 집중호우 등으로 순창군 등 전국적 재해 발생세를 교훈삼아,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발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월말 기준 공사 공정을 15.5%로 정상 추진 중이며, 택지분양 또한 실수요자 택지 37개 필지 중 36개필지(공공주택용지 2개필지 포함)가 계약됨에 따라, 사업준공(2022년 12월) 이후 시정인 29년에는 입주인 정착 등으로 순창군 내 주거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신협, 시니어 세대 특화

금융상품·사회공헌 '눈길'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며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에 따라, 지역 기반 상호금융인 '신협' 도 시니어 세대 특화 금융상품, 노인 대상 사회공헌 사업 등을 전개하며 다가 올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신협은 2018년부터 저출산 고용 위기, 금융 소외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는 금융과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전용상품인 '허버비료(孝) 예탁금'을 내놨다.

허버비료예탁금은 섬세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고령층을 위해 대형병원 진료 예약대행, 치매 검사, 간호사 병행동행, 간병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한다. 월 2회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해 알려주는 전화 및 문자 안부 서비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추가 공제로 납부 없이 가입자 부모 또는 가입자에 대한 1천만 원의 상해사망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허버비료예탁금은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자녀가 가입할 경우 자녀의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협은 지역신협 거점의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며 고령화 시대 상호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은 전국 방방곡곡에 위치한 지역 밀착형 금융활동조향으로 고립된 고령 세대와 사회를 잇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통 있는 식품분야 장인 발굴

농식품부,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공모 신청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우리 전통식품 분야의 최고 장인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발굴해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1994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통식품 분야에서 80명의 명인이 활동 중에 있다.

신청 자격은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 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 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2업(業)에 종사한 자 등이며,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관련 신청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10~30일 기간 중에 각 시·도(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시·도는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선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 7월 28일까지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하면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문의사항은 각 시·도 농식품산업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 박람회 전수자 장려금 지원, 체험 교육 활동비, 명인 기록영상 제작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만든 식품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파티마신협, '소상공인 어부바 플랜' 결연 협약

신협중앙회전북지부(본부장 김영하)는 지난 8일 전주파티마신협(이사장 양춘제)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어부바하기 위해 인근지역 14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2021 소상공인 어부바 플랜 결연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주파티마신협은 결연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포호출 및 관측지원 ▲정부 지원사업 안내 ▲매출 손익 분석 ▲상권분석 ▲회계·세무·법률·마케팅 ▲경영자문단 연계 컨설팅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체계적인 성장을 돕게 된다.

전주파티마신협 양춘제 이사장은 “전주파티마신협은 코로나 19의 경기 침체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1년 동안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